『젠더와 문화』 제11권 1호(2018), pp. 79-103

연구논문

『그 지방의 관습』에 나타나는 언딘 스프라그의 욕망의 실체*

손정희** · 손무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디스 워튼의 작품 『그 지방의 관습』에 나타나는 언딘 스프라그의 끝없는 욕망을 자크 라캉의 욕망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세기 전환기 미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났던 시기로 남성들에게는 부의 축적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져다주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정 안의 여성들은 과시적인 소비의 주체로만 남아있게 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불러온 과시적인 소비는 결혼관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언딘에게 결혼은 비즈니스로 간주되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다. 반복되는 결혼에서 언딘이 남편을 고르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소비욕망을 닮아있으며 그녀의 욕망은 라캉이 말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워튼은 이 작품에서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재현함으로써 당시의 젠더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어: 이디스 워튼, 그 지방의 관습, 대타자의 욕망, 결혼시장, 소비사회

---

* 이 논문은 2017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jhsohn@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chicago2000@naver.com)
ⓒ 201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 https://doi.org/10.20992/gc.2018.6.11.1.79

1. 서론: 변화되어 가는 결혼의 의미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소설 『그 지방의 관습』(*The Custom of the Country*)[1]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장차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힘을 키워가던 시기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뉴욕의 월 스트리트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를 쌓아올리면서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등장한 신흥부유층이 보수적이고 전통적 가치와 매너, 관습 등을 중시하는 기존 상류층과의 대립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회는 여전히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을 뿐 여성은 단지 경제발전으로 풍부해진 물질을 소비하는 주체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산업발전이 여성에게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 기회는 학교나 공장 또는 유흥가 정도에 불과했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했다.

이처럼 여전히 여성에게는 신분상승이나 부를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는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화려한 삶과 신분상승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결혼뿐이었다. 소설 『그 지방의 관습』은 에이팩스 시티(Apex City)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부를 축적한 후 뉴욕으로 이주해 온 신흥부유층 스프라그(Spragg)가의 딸, 언딘 스프라그(Undine Spragg)가 아름다운 외모를 자산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남성들이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었

1) 텍스트로는 Edith Wharton(2008)을 사용하고, 이하 작품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를 표시함.

다면 작품 속 주인공인 언딘은 당시 여성에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인물이다. 남성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술수와 음모, 배신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공을 추구했다면 언딘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 나간다. 언딘에게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기존의 관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려한 삶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철저하게 이익을 따져 성사시켰다가 파기하는 일종의 개인적 욕망 실현도구이자 비즈니스로 전락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언딘에게 결혼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 것은 당시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산업화는 생산과 소비의 지속을 요구했고 남성들은 소비경제 속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아내나 딸 등을 소비자로 만들었다"(설혜심, 2017: 14). 이처럼 경제적 생산부분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과시적인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2]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시장의 소비자나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인 욕망은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결혼관습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다. 반복된 결혼과 이혼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시 이혼문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맥컴(Debra Ann MacComb)은 이혼을 하나의 사업으로 지칭하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이혼사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새로운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서부의 성장과 연계된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동부사람들은 이혼법이 자유로워진 서쪽 지역으로 찾아가 이혼소

2)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2016)이 그의 저서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사용한 용어로 부를 과시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소비를 칭하는 말이다.

송을 하게 되고 '이혼 천국' 이라는 명성을 가진 펜실베니아주(Pennsylvania)에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하이오주(Ohio), 인디애나주(Indiana), 일리노이주(Illinois), 작품에서 언딘이 이혼을 위해 찾은 다코타주(Dakotas), 그리고 네바다주(Nevada)에 이르기까지 이혼산업은 호황을 누리기에 이른다(MacComb, 1996: 772).

언딘이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식까지 거래에 이용하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욕망하는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통과 규범보다도 과시적인 소비와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고 결혼과 이혼도 사업이 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언딘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당시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산업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기제인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롭고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은 소비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소비욕망이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가진 어떤 기호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즉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차별성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우월성을 표출하려는 욕망이며 이런 우월성을 가짐으로써 타인들에게 받는 감탄과 동경을 욕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욕망은 타인의 동경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해 타인의 동경을 욕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77)이 말하는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낸 대타자의 욕망은 언딘에게도 그대로 투사되어 화려한 삶과 타인에게 노출되고 인정받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소설에 나타나는 언딘의 멈출 것 같지 않은 욕망의 실체에 대하여 라캉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들을 살펴보고 작품 속 인물 언딘 스프라그

가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가는 것을 고찰해 보고 그녀의 욕망의 실체를 이해하고 분석해보도록 할 것이다.

2. 라캉이론과 언딘의 욕망

라캉은 정신분석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세 가지 범주들 – 상상계, 상징계, 그리고 실재 – 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상상계는 언어행위 이전의 단계로 거울이미지를 가지고 자아를 설명하고 있고, 언어행위 이후로 주체가 구성된 상징계에서는 결여, 욕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 혹은 세계의 본래적 모습을 의미하는 실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한계로서 죽음충동 및 주이상스와 연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캉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기뻐하고 황홀해 하는 모습에 주목하여 거울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나 물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홀로 서지도 못하지만 거울 속 이미지를 통해 완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인지한다. 아이가 거울 속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Lacan, 1977: 1-2). 이때 아이의 신체는 주체가 되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미지는 자아가 되는 것이다. 거울에서 받아들인 완전한 모습의 이미지와 달리 아이가 느끼는 신체의 불완전한 감각은 주체와 자아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면서 소외가 일어나게 된다. 이미지인 자아 안에서 주체가 소외된다는 것은 결여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에게 일어나는 최초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울단계는 주체를 영원한 분열과 소외 속에 위치시키는 실질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김석, 2016: 148).

라캉의 거울단계 설명을 통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영원히 분

열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캉은 거울단계가 "공간적 동일시의 유혹에 사로잡힌 주체와 파편화된 육체의 이미지에서 통합적인 형태로 확장시켜주는 환상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Lacan, 1977: 4). 거울단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성형(fictional direction)"(Lacan, 1977: 2)은 아이의 성장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 "주체가 자신을 구현(coming into-being)"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Lacan, 1977: 2). 이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상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캉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계 안에서도 상징계 속에 던져질 수도 있고 상징계 안에서 상상계로의 진입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주체는 상상계 안에서 이미지, 또는 어머니와의 상상적 동일시를 하며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이자관계(dual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이 이자구도는 깨어지고 삼자구도가 생성되면서 주체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게 된다. 상징계는 언어와 법과 규범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주체가 사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새로이 생성된 삼자구도에 등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이다(Lacan, 1977: 67). 이때의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일 필요는 없고 상징적인 것으로 욕망의 대상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강요되는 법이기도 하다. 이 아버지의 등장으로 아이는 이자관계인 어머니에게서 분리된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대상은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아이의 주체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이해진, 2011: 154). 이때 개입되는 것이 팔루스(Phallus)다. 라캉은 "팔루스가 대

타자의 욕망의 기표라고 말한다"(Lacan, 1977: 290). 이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이 아버지를 향해 있으며 어머니가 욕망하는 대상인 팔루스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편, "클레인(Melanie Klein)에 따르면 아이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어머니가 팔루스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팔루스를 나타내는 기표는 욕망이 되고 이 욕망은 결여된 것에 대한 갈망이 된다"(Lacan, 1977: 289). 그러므로 팔루스는 주체의 결여를 채워줄 어떤 것으로 영원히 갈망하지만 처음부터 주체가 가져보지 못한 욕망의 대상인 것이다. "상징계 속 욕망의 현실이란 그러한 상실을 전제로 구성된 기표의 연쇄다. 정신분석학은 타자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는 욕망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서사로 되찾는 주체의 여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김서영, 2016: 124).

라캉의 상상계와 상징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을 가진 결여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상상계에서 획득한 허구적인 성향으로 상상을 통해 분열과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고 결여를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환상이나 욕망의 대상이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소설 『그 지방의 관습』의 언딘 스프라그의 욕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무한질주하듯 펼쳐지는 언딘의 욕망의 키워드로는 나르시시즘과 인정욕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언딘에게서는 어린 시절 이 거울단계에서 거울 속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황홀해하는 나르시시즘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언딘의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거울단계에서 일어나는 1차적 나르시시즘과 달리 2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적 나르

시시즘이란 “외부세계에서 애정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심리적 성향으로 자아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나르시시즘”으로서 다음 구절은 언딘의 2차적 나르시시즘을 잘 보여준다(나병철, 2010: 343).

> 이미 언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어머니가 교회에 갈 때 입는 가장 좋은 치마를 ‘차려입고’ 옷장 거울 앞에서 ‘숙녀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미는 어린 시절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금도 미끄러지듯 걸어가기도 하고, 치마를 가다듬고, 부채를 부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말하거나 웃는 등 비밀스러운 무언극을 한다(Wharton, 2008: 15).[3]

언딘은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만족감을 갖는다. 이러한 언딘의 2차적 나르시시즘은 그녀로 하여금 현실에서 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만족하는 인정의 욕망으로 이어진다. 상상계 속에서의 언딘의 자아가 거울을 통해서 완벽한 이미지로 자신을 지각했다면 상징계 안에서의 언딘의 주체는 타인이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일어나는 타인의 표정변화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다”(정혜옥, 1997: 152).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언딘에게는 자신의 매력을 “반사해주는 면”과 “자신의 미모를 경탄해 줄 사람들”(100)이 필요한 것이다. 언딘의 이러한 행동은 라캉이 말하는 응시로 설명될 수 있다. “나의 실존 족에서 나는 사방에서 응시되고 있다”(라캉, 2008: 114)라는 말은 주체가 응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결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언딘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거나 사람들에 의해 응시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

---

3) 이하 인용문은 저자의 번역에 의한 표기이다.

고 이러한 그녀의 존재확인을 위한 인정욕망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게 만드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언딘이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망과 상류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은 뉴욕으로 이주한 후 반복되는 결혼에서 더욱더 커져만 간다. 언딘의 첫 번째 결혼은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인 에이팩스 시티에서 앨머 모펫(Elmer Moffatt)과 한 것으로 충동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인 랠프 마블(Ralph Marble)과의 결혼에서부터 언딘의 욕망은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신분상승과 사교계 진출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한 결혼이라는 사실은 신혼여행지에서부터 극명히 드러난다. 이탈리아의 신혼여행지에서 랠프는 언딘과 단둘이 자연을 즐기며 감상에 젖어 행복한 시간을 만끽한다. 하지만 언딘은 랠프가 선택한 신혼여행지가 너무 외진 장소로 남편 이외에는 자신을 보아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못 견뎌 한다. 사교적인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야만 만족을 느끼는 그녀에게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무료하고 짜증스러운 일이다. 랠프를 설득하여 파리로 가는데 성공한 언딘은 사람들과 어울려 계속되는 파티와 나들이로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옷과 장신구들을 산더미처럼 사들인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더 이상 파리에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언딘은 랠프의 무능력과 이름뿐인 마블이라는 가문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능력을 가지지 못한 랠프와 이혼하고 다음 남편으로 선택한 프랑스 귀족 레이몽 드 셸(Raymond de Chelles)과의 결혼생활에서도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으려는 그녀의 인정욕망은 계속 이어지며 어떤 면에서는 더 강화된다. 귀족과의 결혼

은 언딘에게 한적한 시골에서의 전원생활로 인한 무료함만 안겨주었을 뿐 그녀가 기대했던 화려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시골에서의 무료한 생활 중에도 언딘의 소비는 지속되었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드레스들을 구입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없는 따분한 전원생활은 그녀의 인정 욕망을 강화시켜 줄 뿐이었다. 언딘이 추구하는 화려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모습을 타인이 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딘의 욕망은 당시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과 매우 닮아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주장한다(라캉, 2008: 238). 이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며 욕망하는 것이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며 사회에서 부여받은 신분 또는 규정된 인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이다. 상상계에서 아이가 동일시하는 이미지는 엄밀히 따져서 주체가 아니라 타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체는 처음부터 타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상징계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주체는 타자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야한다. 이처럼 "타자는 주체로서 현전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니피앙의 연쇄가 위치하는 장소인 것이다"(라캉, 2008: 308). 그러므로 "인간은 독립적이고 실재적인 순수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강창동, 2016: 346). 그러므로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주체의 순수한 욕망이 아니라 타인 또는 사회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작품 속 언딘에게도 당시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이나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는 사회적 욕망이 그대로 투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딘의

인정의 욕망은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은 그대로 언딘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리고 그녀에게 신분상승과 화려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언딘이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보이는 신경질적인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언딘은 물론 신경증 환자나 정신병 환자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는 그녀의 행동이나 결혼 후 신경증을 앓게 되는 상황은 그녀의 욕망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라캉에 의하면 "신경증은 주체와 대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 주체가 대타자의 담론과 욕망에 의존하면서 상징계 속에서 결여된 존재로 자신을 느낀다"는 것이다(김석, 2016: 229). 이는 "타자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통, 즉 결여된 존재라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불안이 신경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성민, 2006: 244). 언딘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보였던 태도는 그녀의 부모를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신경질적이었지만 항상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그녀의 신경증을 다스려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랠프와의 결혼 후 그녀의 신경증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신혼여행 도중 파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임신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파리에서 최신유행으로 맞춰놓은 드레스들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열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그녀의 신경증은 아들 폴(Paul)의 출산 후 사교계에 나갈 수 없었을 때에 그녀를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었다. 또한 어느 해에는 대부분의 사교계 인물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파리로 떠나갈 때 자신만 뉴욕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의 신경증은 또다시 그녀를 앓아눕게 만들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

은 언딘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중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을 때라는 점이다. 이처럼 언딘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신경증을 일으키며 이는 그녀가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임을 예증한다.

>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파리]에 갈 거라는 사실 때문에 언딘의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다. 언딘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동쪽으로 가는 증기선을 타려고 밀려들었다. 뉴욕은 황량한 사막같이 되었고 랠프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보여서 언딘은 더욱 화가 났다. … 한편 언딘 앞에는 사교적인 행사도 없이 여러 달을 보내야 하는 뉴욕의 긴 봄과 애디론댁 공원에서 보낼 한없이 공허한 여름이 쭈욱 펼쳐져 있었다. … 지금 당장은 현재도 미래도 모두 똑같이 공허해 보였다. 그러나 유럽에 가서 런던과 파리에서 재편성되는 작은 뉴욕에 합류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정당화해줄 만큼 다급한 이유들에 의해 강화되었다(Wharton, 2008: 148).

파리의 사교계에서 만끽할 수 있는 화려한 시간들에 대한 강한 “욕망”은 언딘으로 하여금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진 여성으로서 어린 아들과 남편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행경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남편의 사정이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재정적 상황은 그녀를 단지 짜증스럽고 화가 나게 만들 뿐 그녀에게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나 수용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연민 등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언딘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오로지 타인들의 시선에 만족감을 느끼는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언딘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지나친 자기애는 자신 이외의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품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연애 과정을 통해 언딘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진 명성이나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진 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은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모습과 무척 닮아있다.

3. 대타자의 욕망과 자본주의 사회

주체는 항상 타인에 의해 인식되고 주체의 모든 행위는 타자와 관계되어 있다. 라캉은 무의식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소문자로 된 타자(other)와 대문자로 된 타자(Other)를 구분한다. 소타자는 상상계의 타자로 "거울단계에서 유아가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가정하는 타자이다. 반면 대타자는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 안으로 동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 타자성(absolute otherness)이다"(호머, 2007: 111-112).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대타자는 어머니이지만 대타자가 반드시 어떤 개인일 필요는 없다. "대타자는 상징적 단계에서 작동한다. 상징적 공간은 내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타자는 어떤 단일한 대행자로 인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내 뒤에서 항상 나를 지켜보는 '신'이나 내 인생을 바칠만한 어떤 실제의 개인이나 대의명분(자유, 사회주의, 민족) 같은 것이다"(Zizek, 2007: 9). 언딘이 자신의 욕망처럼 생각하는 욕망은 당시 뉴욕을 지배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이다. 자본, 즉 돈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며 물질적이고 과시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은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언딘의 경우 대타자의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추동되는 삶이다.

과시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 낸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대 여성들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던

결혼관습이었다. “자본주의의 소비적 욕망은 소비와 폐기의 논리가 근대 광고 전략에 중요하게 반영되어 아주 은밀하게 가정에까지 확대되어졌다. 당시의 이혼산업이 부흥했다는 것은 결혼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의 순환시스템에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일회용품처럼 버릴 수 있는 품목이 되어버린” 것이다(MacComb, 1996: 771). 언딘의 결혼시장에 대한 지혜는 “이혼은 언제나 하면 좋은 것”(60)이라는 말에 압축되어 드러난다. 이는 “상품 자체의 품질보다는 상품을 소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득을 강조하여 소비를 권장하는 미국의 광고 트렌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MacComb, 1996: 768).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은 언딘에게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을 통해 대타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욕사교계에 갓 입문한 언딘은 한 파티장에서 랠프 마블을 소개받지만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맛사지사 히니 부인(Mrs. Heeny)에게서 마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녀는 랠프라는 사람이 아니라 랠프와의 결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 사람과의 결혼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마침내는 그와 결혼하기에 이른다.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이나 이득을 위해 선택했던 랠프와의 결혼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더 나은 혜택과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상품을 선택하듯 랠프와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를 선택한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유부남 피터 밴 더갠(Peter Van Degen)과의 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품의 품질 즉 피터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진 경제력에서 그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득이 그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였다. 언딘은 피터에게 버림받은 후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대타자의 욕망은 아들까지 이용하여 프랑스 귀족 레이몽 드 셀과의 결혼에 성공하게

만든다. '이혼은 언제나 하면 좋은 것'이라는 언딘의 지혜는 더 나은 상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기존의 상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앨머 모펫이 사업의 성공으로 큰 부자가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미련없이 레이몽 드 셀과 이혼하고 모펫과 다시 결혼하는 선택을 하게 한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언딘의 대타자의 욕망은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시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광고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광고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소비가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된다.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한 광고회사는 "물건을 구매하는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널려있는 상품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매하는 일'이 '만들어 내는 일'보다 창조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여성들의 소비를 촉진하기도 한다(MacComb, 1996: 770). 이렇듯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 만들어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소비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 데에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여성들을 소비주체로 만든 남성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마블가의 친구인 찰스 보웬(Charles Bowen)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랠프의 누이인 페어포드 부인(Mrs. Fairford)은 랠프가 아내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언딘의 지나친 소비와 화려한 생활을 비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찰스 보웬의 발언은 당시 미국의 결혼관습의 현실을 담고 있다.

> 나는 미국의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말하고 싶어요. … 사실은 말입니다 미국남자들은 그들의 아내를 멸시하지요. … 남자는 실제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그의 아내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남자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쳐나갈 때 얼마나 그의 아내의 판단

> 이나 도움에 의존하나요? 랄프를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은 그의 아내의 지나친 사치가 그로 하여금 일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의 여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그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주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Wharton, 2008: 128-9).

위와 같은 찰스 보웬의 말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가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은 남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결혼관습이 "여전히 남성들이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하고 여성들에게 순응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풍요로워진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여성들을 소비의 주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정혜옥, 2004: 182).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적 욕망을 욕망하는 언딘은 마치 소비자가 더 나은 상품을 구매하듯이 더 나은 상대 즉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자들을 골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다. 찰스 보웬의 표현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무시무시하게 완벽한 결과물"인 언딘은 결혼시장의 소비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언딘 자신이 결혼시장의 상품이 되기도 한다(정혜옥, 2004: 131). 이는 언딘 자신이 욕망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적으로 드러내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남성들에게 아름다운 아내는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는 한 부분으로 작동한다. 언딘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익히고 숙지하여 자신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는 것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언딘은 하나의 독립업체로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자가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인물로 보웬의 말처럼 완벽한 자

본주의의 결과물이 된다(Patterson, 1998: 214).

언딘이 대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난 네 명의 남자들은 네 번의 결혼으로 맺어진 세 명의 남편들과 불륜의 대상이었던 피터 밴 더갠으로 이들은 기존 상류층과 신흥부자층으로 나눌 수 있다. 랠프 마블과 레이몽 드 셀은 기존의 상류층과 귀족신분으로 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자본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언딘의 욕망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그 명성과 힘을 잃어가는 구시대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들은 언딘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은 채워줄 수 있었지만, 과시적이고 화려한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언딘의 욕망은 채워줄 수는 없는 인물들이었다.

언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인물로 피터 밴 더갠을 선택한다. 하지만 언딘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냉정하게 남편을 외면하는 모습에 그녀의 욕망 뒤에 감춰진 실체를 알아챈 피터는 비밀스러운 여행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는 그녀를 떠나간다.

> 그들의 여행이 마치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숨겨야 마땅한 그런 종류의 도피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그녀를 대했다. 언딘은 피터가 모든 화려한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서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식당이나 게임 테이블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언딘을 유럽의 알려지지 않은 구석진 곳에서 또 다른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고 멋스러운 호텔이나 사람이 많은 온천은 피했다(Wharton, 2008: 230).

표면적으로는 언딘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편을 차갑게 버리는 모습을 통해 피터 자신도 언제든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그녀에게서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피터는 단 한 번도 가정을 버리고 언딘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인물이다. 피터 또한 신흥부유층에 속하는 인물로 언딘 못지않게 자본주의의 욕망을 좇는 인물이지만 언딘과는 달리 철저한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피터 스스로가 자본주의의 소비적 욕망을 좇는 인물인 만큼 언딘의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고 언딘에 비해 막강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피터는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 언딘이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피터와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언딘에게는 결혼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취급하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거래에서 첫 번째로 언딘에게 실패를 안겨다 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딘은 마치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재기하듯이 피터에게서 선물로 받은 진주목걸이를 재화로 바꿔 새로운 남편감을 찾아 유럽으로 떠난다.

언딘의 첫 번째이자 세 번째 남편이 되는 앨머 모펫은 언딘과 너무나 닮은 꼴로 철저하게 욕망을 좇는 인물이다. 언딘이 결혼에 거듭 실패하는 동안 모펫은 투자에 거듭 실패를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 신흥부자가 된 사람으로 모펫과 언딘의 결혼은 서로의 욕망을 당분간은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다. 언딘이 자본주의 사회를 완벽하게 표상하는 여성이라면 모펫은 자본주의 사회를 완벽하게 표상하는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패터슨은 모펫이 계속되는 실패를 이겨내고 철도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활기찬 교활함(Jovial cunning)"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의 교활함은 단지 자신의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화폐처럼 슬기롭게 재투자하듯이 언딘의 가치를 이용했다는 것이다(Patterson, 1998: 229). 모펫은 자신과 언딘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댓가로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랠프를 끌어들이고 자신이 언딘을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언딘의 곁에 머물며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사업가다운 전략을 제시해준다. 교활한 사업가인 모펫은 언딘이라는 인물을 증권시장에 투자하듯이 그녀가 마블이라는 이름과 더

명망 있는 이름 셀을 획득하게 도와준 다음 자신에게 그녀를 차지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차지한다. 언딘과 모펫의 결합은 첫 번째 결혼에서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었겠지만 다시 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과시적인 대상을 욕망하는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언딘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교계의 중심으로 타인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며 모펫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얻은 가문의 이름과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언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부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인 것이다.

언딘의 욕망은 모펫과의 결혼으로 채워진 듯 보이지만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녀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라캉은 "욕망은 인간의 기본욕구 너머의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한다(호머, 2007: 136). 여기에서 충족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라캉이 상상계와 상징계를 통해 설명하는 근원적인 결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근원적인 결여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며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어떤 것이자 타인이 욕망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비사회에서의 욕망이란 타인의 시선과 동경을 욕망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주체를 확인받는 인간으로서 이 대타자의 욕망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딘의 끝없는 욕망을 암시하는 장면이 작품 마지막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앨머 모펫과 결혼한 언딘은 그녀가 욕망하던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짐 드리스콜(Jim Driscoll)이 대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대사부인은 아주 매력적인 자리로 그녀에게 다가온다. 이혼한 여인은 대사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에 잠시 실망하지만, 여전히 자신이야말로 대사부인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설의 결말은 언딘이 또 다른 것을 욕망할 수 있는 여지를 암시하고 있다. 이혼한 여인에게 재혼이 허용되지 않는 카톨릭 전통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귀족

레이몽 드 셀과의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불가능한 결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취했던 언딘의 행동들을 보면 대사부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딘의 대타자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욕망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이 욕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더 이상 욕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결여의 존재인 인간은 이 결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라캉은 죽음충동을 말하는데 이는 역으로 주체의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하지만, 이 욕망은 대타자에 의해 그 모습을 달리한다. 이 작품에서 언딘 스프라그는 그녀의 나르시시즘이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을 받아들이면서 그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거듭하는 언딘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이 미국사회에 가져온 변화들, 그중에서도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했던 여성들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사회활동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결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나 남자형제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시 여성들에게 결혼과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남편을 상품을 고르듯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체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장차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으로 끊임없이 욕망하는 언딘의 모습은 끊임없는 소비를 갈망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언딘의 결혼을 통해서 제시된 젠더문제에 대한 비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은 철도와 광산 등의 개발로 인한 산업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며 그중에서도 뉴욕은 월 스트리트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힘을 축적해 가는 도시였다.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뉴욕은 새롭게 생성된 권력층인 신흥부자층들이 자신들이 축적한 부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문화를 생성해 내면서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한 반면 구세대로 알려진 기존의 상류층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신흥부자층에게 밀려 전통적 가치들을 잃어가는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작품 『그 지방의 관습』에서 기존 상류층을 상징하는 랠프 마블이 자본주의 사회의 표상인 언딘에게 신분상승의 발판으로 이용만 당하고 냉정하게 버림받는 상황은 당시의 기존 상류층과 새롭게 부상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신흥부자층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워튼은 『그 지방의 관습』에서 결혼 또한 철저하게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비즈니스로 전락시키고 배우자를 필요에 따라 소비하고 폐기하는 하나의 상품처럼 선택하는 언딘을 통해 당시 뉴욕에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사라져가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풍조를 비판하고 있다. 언딘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당시 여성들의 제한된 선택이나 권리, 또는 사회적 위치 등을 시사하고 있다. 생산은 소비를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결혼관습은 여전히 여성들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만 여기면서 변화해

가는 사회에 함께 동참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발전된 경제의 과시적인 소비주체로만 존재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언딘이 결혼과 이혼을 통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은 남성주도적인 사회에서 직접적인 사회생활에서 배제된 채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욕망을 체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욕망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타인의 동경을 욕망하는 것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으로 대타자의 욕망인 것이다.

워튼은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이며 끝없이 욕망하는 언딘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본주의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사회, 문화적 변화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낸다. 당시 여성은 남성들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존재로 취급될 뿐, 사회의 생산적인 부분이나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을 극화함으로써 워튼은 당대 젠더의 문제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창동(2016), “한국의 학력 상징계와 라캉의 인정욕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2권 4호, 337-360쪽.

김서영(2016), “감정적 유대를 구축하는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프로이트의 동일시 이론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9권 2호, 115-146쪽.

김석(2016), 『에크리』, 파주: 살림출판사.

김성민(2006),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본 신경증과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평』, 제47권 1호, 243-266쪽.

나병철(2010), 『환상과 리얼리티』, 서울: 문예출판사.

라캉, 자크(2008), 『세미나 11』, 맹정현 · 이수련 옮김, 서울: 새물결, Lacan, J., J. A. Miller(ed.)(1973),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Seuil: Sibylle Agency.

베블런, 소스타인(2016), 『유한계급론』, 김성균 옮김, 서울: 우물이 있는 집, Veblen, T.(1991),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Routledge.

설혜심(2017), “서구 남성사 연구의 주요 의제들”, 『젠더와 문화』, 제10권 2호, 7-44쪽.

이해진(2011), “아버지에 갇힌 주체에서 어머니로 열리는 주체”,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 131-165쪽.

정혜옥(1997), “결혼이라는 직업, 이디쓰 워튼의 가부장제 비판”, 『덕성여대 논문집』, 제28권, 145-163쪽.

_____(2004), “비즈니스로서의 결혼 : 이디스 워튼의 『그 지방의 관습』을 중심으로”, 『19세기 영어권 문학』, 제8권 1호, 179-196쪽.

호머, 숀(2007),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서울: 은행나무, Homer, S.(2005), *Jacques Lacan*, New York: Routledge.

Lacan, J.(1977), *Écrits: A Selection*, trans. A. Sheridan, New York: Norton.

MacComb, D. A.(1996), "New Wives for Old: Divorce and the Leisure-Class Marriage Market in Edith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American Literature*, 68(4), pp. 765-797.

Patterson, M. H.(1998), "Incorporating the New Woman in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6(2), pp. 213-236.

Wharton, E.(2008), *The Custom of the Coun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Zizek, S.(2007), *How to Read Lacan*, New York: Norton.

(논문 투고일: 2018.04.30, 심사 확정일: 2018.06.11, 게재 확정일: 2018.06.17)

〈Abstract〉

Configuring Undine Spragg's Desire in *The Custom of the Country*

Sohn, Jeonghee* · Son, Muye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eemingly endless desire of Undine Spragg in Edith Wharton's *The Custom of the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Jacques Lacan's concept of 'Desire of the Other.' At the turn of the century in America, rapid economic growth provided men with the opportunities to accumulate wealth and climb up the social ladder. However, women could not but remain as the subject of conspicuous consumption. This conspicuous consumption also influenced the custom of marriage. Undine Spragg considered marriage as a kind of business transaction. In her repeated pattern of marriages, the way she chose her husbands is equal to consumer desire in a capitalist society. Her desire can be seen as the desire of the Other as Lacan states. Accordingly, Undine's desire can never be satisfied. In this way, Wharton criticizes contemporary gender awareness by demonstrating that women were only given the choice of the marriage to improve their lives in a male-dominated society.

Key words: Edith Wharton, *The Custom of the Country*, Desire of the Other, marriage market, consumer society

* Lea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nglish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